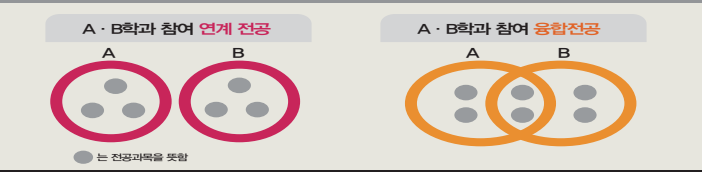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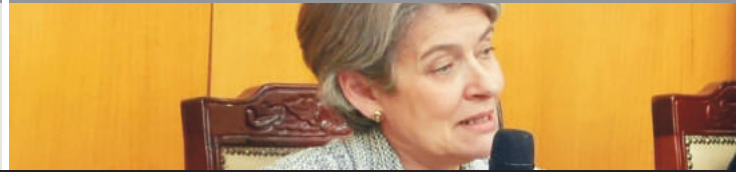
3》"허위 사실 유포시 기숙사 강제퇴사?" 규정 논란



4》융합전공,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6》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첫 강의



법인 “총장선출제 개선 논의하자” 이사회 산하 상설기구 발족 계획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30일 총장선출제와 관련해 법인과 대학평의원회 대표단이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대학평의원회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법인은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에는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 직원노조 김종현 위원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희완(사회학 2014) 위원장,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이 대학평의원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법인에서는 공영일 이사장, 조여원 상임이사, 서규훈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법인은 지난 2016년 대학평의원회 연구특위에서 법인에 제안한 총장선출제 안을 계기로 총장선출제

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규훈 사무처장은 “대학에 위임했던 1년간의 총장선출제 연구 결과 초안을 3월 2일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4월 말에 있을 결산 이사회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출제에 대해 상설기구를 구성할 정도로 법인 역시 현행 총장선출제에 대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상설기구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설기구가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학평의원회 대표단의 우려도 있었다. 법인은 “총장선임은 이사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 역시 이사회의 몫”이라며 구성원 대표의 상설기구 직접 참여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직원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총장선출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 마련 과정에서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총장선출제마저도 이사회에서 독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효형 학생회장 또한 “총장의 발언과 방향성 등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이 있는 만큼 총장선출제에도 구성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자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동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법인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조인원 총장의 임기가 올해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시기가 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총장선출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결국 현재 선출제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상설기구와 얘기를 해서 8월 이사회에 맞춰 가닥을 잡으면 시간은 충분히 보인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회 대표단은 “대학평의원회가 도출할 총장선출제 모델을 상설기구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면담은 법인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4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면담내용을 알리고, 합리적인 총장선출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임용권, 법인 → 대학 전면 이관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경희학원이 법인 이사장의 교원 임용권을 우리학교 총장에게 전면 위임했다. 지난 3월 2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임용 권리를 우리학교 총장에게 위임했다.

현행 사립학교 법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모두 13개로 임용을 구분하고 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우리학교 교원 임용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법인 산하 모든 교육기간의 교원 임용권은 기존 정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중학교 등 법인 산하 8개 교육기간 중 교원 임용권 모두가 학교장에게 위임된 곳은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법인, “교수 임용권 위임으로 ‘효율성’ 갖출 필요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채용, 재임용, 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으로 특정 사항만 위임했던 기존 임용 정관이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까지 포함해 모든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확장됐다.

법인 정관 제37조(임용) 제3항 제1호의 변경을 통해 ‘경희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사립학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임용 권리를 함축한다. 현재 경희학원은 개정된 법인 정관을 교육부에 보고한 상태이다.

경희학원 측은 개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임용권 행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임용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용권을 우리학교 안으로 통일해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이사회 특성상 신속한 소집

이 어려워 임용 전반에 대한 의결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희학원 심의기획실 조병렬 회장은 “법인 이사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취합해야 하는 등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위임 결정으로 임용 전반에 대한 의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격이다”고 말했다.

교원징계위원회도 우리학교로 이관돼

또한 “교수-학생 사이에 성추행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위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처럼 유지했을 경우, 징계의 속도가 더뎌지게 되고, 징계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용권 전반이 우리학교 총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양형을 의결하는 교원징계위원회도 법인에서 우리학교로 이관될 예정이다. 현재 교무과와 감사행정원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캠퍼스 교무과 정종천 계장은 “오는 4월 중 교원징계위원회 설치와 관련 규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이 완료되면 우리학교는 교원에 대한 ‘징계 제정권’과 ‘징계 의결권’ 모두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하던 징계 절차가 우리학교 내에서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형법을 강요하는 안경욱(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소속이 이관됐다는 사실보단 향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며 “소속 위원들이 학교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경대 학생회가 본관 앞에서 ‘부족한 공간 해결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석현 기자)

“부족한 공간 문제 해결하라” … 논의 급물살 예정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정경대학 학생회가 지난 21일 부총장과 면담을 성사시켰다. 부총장은 소통 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본부 주재로 학생대표와 미래혁신원 등이 참여한 공간조정회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부총장실은 “협의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 가능한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경대학 학생회 강명규(행정학 2016) 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있었기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조속히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대학 학생회는 지난 22일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SPACE21 공사 이후 잔여 공간 논의에 본부가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대학본부가 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또한 “정경대학 강의실 활용률은 88.6%로 청운관보다 높다.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2,700여 명이 소속된 단과대학이지만 사용가능

한 세미나실은 단 1개”라며 정경대학이 처한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과대학 3개 층, 한의과대학 3개 강의실을 요구하는 안까지 전달했지만 학생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며 부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경대학 학생회가 요구안으로 내 건 것은 ▲학생회장-부총장 직접 면담 ▲공간이 필요한 단과대학과 본부의 공간조정회의 개최였다. 이를 위해 정경대학 학생회는 ‘두개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536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기자회견 하루 전 면담이 성사됨에 따라

기자회견은 학생들에게 공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와 공간이 부족한 타 단과대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현(영어통번역학 2015) 위원장은 “정경대 뿐만 아니라 문과대, 자율전공학과, 동아리도 심각한 공간 문제에 당면해있는 상황”이라며 “보여주기 식의 논의가 아닌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간조정회의는 4일 개최 될 예정이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그는 왜 그녀의 체장을 먹고 싶어 했을까
강인욱(사학과) 교수 >> 7면



시선

사설

이제 교육의 추는 학생으로 옮겨갈 때

2017학년도 한 해 동안 경희움부즈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수업 문제였다. 전체 117건의 민원 중 25건, 학생 민원으로만 좁히면 68건 중 25건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업 민원을 두고 경희움부즈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익식 향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의 내용,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교·강사의 태도와 강의 중 발언까지도 교육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경희움부즈라는 제도적 창구 외에도 SNS상에서 수업을 비판하는 주장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수의 차별적·혐오성 발언은 즉각 학내외로 공유되며 논란을 낳는다. 2017년 ‘빅뱅에서 문명까지’ 강의 중엔 교수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 “수업 준비를 안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6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천 개의 공감’ 강의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교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케케묵은 강의 자료와 맥락 없는 ‘막말’은 모두 교수가 가진 학문적 권위 뒤에 숨어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됐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인권의식과 함께 성장한 세대다. 천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교육서비스의 고객’으로 합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더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권위를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는 때는 지난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미래대학리포트2015’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요구했다. 전문가보다는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교수상을 원했다. 학생들은 미래에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으로 ‘정신적 스승’을 기꺼이 꼽았다. 미래에도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강의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7년 초 우리 신문이 진행한 구성원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우리학교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보다 나은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대학 본부 또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대학리포트나 대학혁신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대학 내부에 교육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있었던 방증이었지만 당장 바뀌는 것은 많지 않다.

지금껏 사회나 대학이 교수에게 바랐던 가치는 교육보다 연구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대외의 각종 대학 평가는 교수의 연구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경희 fellow 제도’가 교육 부문 포상을 실시했으나 이전까지는 이를 위시한 각종 평가와 포상 역시 연구가 중심이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강의평가 정도에 국한됐다.

2003년 연세대가 도입한 이후 대학가에 완전히 자리 잡은 비전임교원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 행해진 강의의 43.2%는 비전임교원의 몫이었다. 정규직 교수 절반 정도의 연봉에 제대로 된 시설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하라고 요구만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제도와 지원책을 고민하고, 학생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며 교수 개개인 역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다.

대학은 지금

연세대 2년째 ‘비대위’ 체제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김수혁 기자 shrek@khu.ac.kr

성폭력 의혹을 받은 동덕여대 하일지(문예창작학) 교수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폭력 의혹’ 하일지 교수 “사과할 것도, 철회할 발언도 없다”/중앙일보, 2018.03.19) 기자회견 장소에서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하 교수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이를 거절하며 “강단에서 물러나 작가의 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내 ‘미투 운동’을 지지했으며 학교 측에 인권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 연대가 사회학과 H교수의 징계 결정 시기를 두고 학교를 상대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회학과 H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 행적과 앞에서 무기한 천박농성 돌입/대학신문, 2018.03.25) H교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학식논란

학생은 을이 아니다

신정인 기자

sjj0201@khu.ac.kr



개강 후 한 달이 지났다. 곧 중간고사도 찾아온다.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종강일만 멀어 보인다. 학교 밖에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한다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종강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일, 그것도 30여 년 만에 헌법을 수정하는 굵직한 투표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학교도 얼마 전 학생대표를 뽑는 재선거를 치렀고 한쪽에선 총장 선출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렇지만 생활 속 민주주의는 꼭 투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인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노력 모두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이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학교행정에 불만을 품고 직접 이를 해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학사지원과의 학점 포기제도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경희움부즈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3개월 동안 홀로 학교와 맞섰다. 고교분투 끝에 학점포기제도 개정안 4년 유예기간을 이끌어 냈다. 그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행정실 앞

에서 을의 입장이 돼야 하는 것은 부조리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한편, 국제캠퍼스는 개강 직후부터 학생식당의 가격 인상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사실 학생식당에 대한 불만은 국제캠퍼스 학생에겐 딱히 새로운 것이 없는 화두다. 학식은 늘 ‘돈값을 못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이 불만에 불을 지핀 기폭제일 뿐이었다.

학생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업체를 변경하든 직영화를 하든 싼값으로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라는 것. 직영화 논의는 물론 어렵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위탁 급식업체의 주장과 그런 업체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학교의 사정이 뒤엉켜 있다.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학식의 절대적인 소비자인 학생에게 외면당하는 학생식당에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은 떠나지 않는다.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학생들이 보인 관심은 뜨거웠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적 상황을 많은 구성원이 인식했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명확하다면 변화를 위해 움직일 때다.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학식을 먹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다. 또한, 학교는 구성원을 위해 응당 그리해야 한다. 학점포기제도 개정안 유예를 이끌어낸 그가 말했듯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학교 앞에서 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수가 학생인권 침해와 연구비 횡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가 늦어지자 학생 연대는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학생 연대는 H교수 파면, 징계지역에 대한 총장의 사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입장 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다수의 대학이 정작 재정난을 타계할 기부금 유치에는 소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호소하는 대학, 발전기금 유치에는 무관심?/한국대학신문, 2018.03.24) 국내 사립대의 기부금은 전체 수입총액 대비 1.7%에 불과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 해외 대학에 비해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직고용에 대해 총장은 “직고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4명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전없던 청소노동자 사태, 직접고용이 해결책으로 부상하나/동대신문, 2018.03.26) 총장의 공개적 답변은 파업 시작 52일 만에 처음이었으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민노총) 측은 “합의 과정을 거쳐 협상이 타결돼야 농성 해제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동국대 총학생회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민노총 측은 “학교 관계자가 부재한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불참했다.

지난 13일 연세대 54대 총학생회 보궐 선거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총학생회 공백’ 초유의 사태, 학생사회는 어디로 흘러가는가?/연세춘추, 2018.03.17) 연세대는 2년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원주캠퍼스도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루지 못해 사상 최초로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는 인촌 김성수의 잔재 청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인촌 흔적 지우기 촉구 기자회견/고대신문, 2018.03.12)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려대 서울총학생회 측은 2월 15일 본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촌 동상을 비롯하여 학내의 인촌 잔재들을 청산하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성수의 동상 앞에는 그가 쓴 기고문에서 발췌한 ‘나는 교육자의 양심에서 말한다! 제군아, 의무에 죽으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서로 편 가르다보면 민주주의 가치 잃게 돼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째다. 한국 근현대사는 이 좁은 땅에서 편을 갈라 싸운 역사였다. 제주 4.3 사건은 그 편 가르기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역사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쉽게도 긍정적인 대담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각자의 편에 의한 적대적 이름 붙이기 작업은 그 호칭과 형태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호명을 통한 빨갱이, 종북, 친노, 친박 등 정치적 편 가르기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일베, 메갈, 한남, 맘충 등 젠더의 영역에서 날카롭게 대답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편’이 공유하는 합리성을 두르고 내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은 그르다는 극한의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화됐다.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치열히 대립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 사이 극한의 이념 대립 속에서 이러한 편 가르기와 상관없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비극이다. 1948년부터 1954년 9월 까지, 제주도민의 10% 이상이 이념 대립에 휘말려들었다.

당시 좌익과 우익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상대의 단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반대편이 지는 장면을 연출해야 했다. 극과 극이 가장 저열한 수단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생을 영위하던 힘없고 약한 일반인에 반대편의 이름을 붙여 박해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가 SNS에 글을 쓰면 그 글을 어떻게든 물어뜯어 대립의 싸움터에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자연스레 그 글을 변호하려는 사람도 몰려든다. 발언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저열한 설전이 시작된다. 논리와 이성은 오간데 없고 대부분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이다.

완벽히 편이 갈라진 온라인에서, 처음 글을 썼던 글쓴이의 해명마저 또 다른 싸움의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70년 전 제주에서 좌우가 편을 나눠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애꿎은 민간인을 희생양 삼은 것처럼, 2018년 온라인에선 본인의 합리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개개인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한 것이 정답에 근접하다고 믿으며 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생각을 핍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서로 한 발자국, 딱 한 발자국만 물러나 상대방의 일부만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전혀 모르는 상대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적대해야할 원수가 아닌 함께 나아갈 동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1동) / Tel 02-961-0093-5 국재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기숙사 비방 시 강제 퇴사 규정, ‘표현의 자유’ 논란

아름원 세척 논란

안나연 기자 na@khu.ac.kr

【서울】 지난달 14일, 온라인에 게재된 서울캠퍼스 신축 행복기숙사 아름원(아름원)의 「2018 운영내규」는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를 하는 자는 강제 퇴사 조치(영구 입사 불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다수의 학생들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척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된 세척은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기숙사생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허위사실 유포자 적발 시 강제 퇴사 조치가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에 대한 논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비방’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적인 비판이 비방으로 낙인 찍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보인다.

한편 다른 학교에도 이와 동일한 세척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전체 18개의 행복기숙사(기숙사) 중 33.3%에 달하는 6개의 기숙사(경희대, 세종대, 제주관광대, 한양대 서울캠퍼스(서울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리카캠), 상명대)가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시 기숙사생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인 경희대, 세종대, 상명대 행복기숙사가 허위 사실 유포자 적발 시 즉각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즉각적인 퇴사처리 대신 처벌을 내리는 기숙사들은 모두 벌점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가장 악소한 처벌을 내리는 기숙사는 제주관광대로, 누적된 벌점이 총 15점일 때 강제 퇴사조치를 취하는 세척을 갖고 있고 온라인 허위사실 및 비방 행위 시 이의 20%에 달하는 벌점 3점을 부과한다. 한양대 서울캠은 누적된 벌점이 총 20점일 때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하는 세척을 가지고 있고 그에 25%에 달하는 5점을 부과한다. 한양대 에리카캠의 경우 벌점 누계 10점일 시 강제 퇴사 조항을 갖고 있는데,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시 퇴사 가능 벌점의 70%에 달하는 벌점 7점을 부과한다.

작년 2학기에 아름원에 입사해 1년째 생활 중인 A씨는 “애초에 처벌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작년부터 생활해보니 악의적으로 헐난하는 학생들은 일부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원이 가지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생각했을 때, 내규를 정함에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

행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방 시 처벌’ 조항을 내걸어 건설적인 비판도 비방으로 치부돼 강제 퇴사 당하지는 않을까 무섭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기숙사 내 마약 유통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 ‘기숙사 내 폭행, 도박, 절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아름원에서 생활 중인 B씨는 “허위 사실이 문제라면 벌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비방과 별개로 아름원의 장점을 보고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 명목으로 강제 퇴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과하다고 느껴진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에 아름원 행정실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생뿐만 아니라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외부에 비취지는 우리학교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름원 행정실 윤필영 계장은 “강제 퇴사 조치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면 강제 퇴사 조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기숙사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 부재해 기숙사와 기숙사생 간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경희숲_29448’ 게시물은 해당 세척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기숙사가 학생을 상대로 거주지를 불모로 한 막대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숙사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강제 퇴사 조치는 궁극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보성(자유전공학, 2018) 씨 역시 “타 지역에서와 분명한 거주지가 없는 입장에서는 처벌 여부를 떠나 해당 조항을 내건 것 자체가 기숙사의 큰 권력으로 느껴져 불편하다”며 강제 퇴사 조치를 비판했다.

이처럼 해당 세척이 ‘기숙사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는 권력에서 기인한 횡포’라 지적받은 것에 대해 아름원 행정실 윤필영 계장은 “기숙사에게 권력이 있단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기숙사는 사생을 기준에 근거해서 뽑을 뿐, 마음대로 학생을 선별할 권력은 부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숙사생들의 불만에 대해 윤 계장은 “학생을 제재하거나 인로를 차단하고 탄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계획”임을 밝히며

“대다수의 건전한 비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점은 ‘허위사실 유포’에 있다”며 “비방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일 뿐, 건설적인 비판까지 통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얘기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헌법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해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을 강조한다.

물론 기숙사가 입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인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을 생각했을 때, 내규를 정함에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윤 계장은 ‘비방’이라는 단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갖는 논란의 여지를 인정했다. 따라서 해당 세척에서 ‘비방’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이미 정해진 뒤 공표된 세척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3월 28일부터 실시하되, 4월 중 문구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전했다.

프랜차이즈 첫 학내 입성, 대기업 입성 물꼬 트나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서울】 호텔관광대학(호관대) 외부 카페 자리에 이디야 커피(이디야)가 지난달 20일 문을 열었다. 우리학교 내부에 사기업이 자리를 잡은 것은 학교 설립 이후 처음 나타난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학교가 그간 외부업체를 들이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학내에 나타난 이디야의 모습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생소하다.

프랜차이즈의 학내 입성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우리학교는 사기업을 학내에 들이지 않았다. 대신 경희대 생활협동조합(생활협)이 2003년 이후 학내 매장과 복지시설 등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디야 입점은 학생의 취업과 연계되는 계약조건, 산학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결정됐다. 재

정예산처 재정사업팀 관계자는 “호관대와 이디야의 협약사항과 산학협력의 실익을 따졌을 때 괜찮은 조건이라 판단해 이디야 입점을 수용한 것”이라며 “사기업의 인턴십과 채용연계는 호관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디야가 들어서기 전 해당 위치엔 생활협이 운영하는 카페 매그놀리아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중앙도서관, 경영대학, 호관대에 위치했던 셀란이 영업을 종료한 뒤, 생활협은 구성원과 대학본부의 요청에 따라 세 곳 모두에서 카페 매그놀리아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호관대를 제외한 중앙도서관과 경영대학 매그놀리아는 임시운영이 종료된 이후 생활협 직영점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호관대 카페 매그놀리아의 임시운영 종료를 앞두고 대학본부는 1월 말 카페 운영 주체에 대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다.

운영주체 선정의 주요 기준은 학생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였다. 호관대 학생들은 ‘베이커리 경희’ 때처럼 학생실습이나 인턴채용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베이커리 경희는 2007년 출범했던 학교 기업으로 학생들에게 실습의 장을 제공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학생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여러 업체와 접촉했고 이디야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디야는 이미 지난해 5월 호관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호관대는 단과대학 특성상 외식이나 호텔 분야 기업과 지속

적으로 산학협력을 체결해왔다. 이 협약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디야는 학생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카페운영을 결정한 것이다. 입점에 따라 우리학교와 이디야가 추가로 협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매출 6억 초과 달성 시 초과 매출의 10%를 우리학교에 기부 ▲호관대 내 별도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이디야 커피캡 교육 및 인턴 채용 ▲50잔 이상 구매 시 교내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이 그 내용이다.

이정원(외식경영학 2015) 씨는 “이전에 비해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테이블에 앉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지(외식경영학 2013) 씨는 “가격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커피의 품질도 괜찮고 인턴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한편 생활협 입장에서는 외부 업체의 입점이 아쉽다. 비영리법인인 생활협은 벌어들인 수입을 다시 학교에 환원하는 체제로 학교 구성원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생활협 심현철 팀장은 “인턴십이나 실습은 본래 생활협의 설립 취지와도 달라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나 준비할 계획”이라며 “작년 9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사업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생활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이디야 커피가 입점한 것과 비슷한 논리로 다른 사기업이 하나둘씩 들어오면 예외라고 설명해야 하는 매장이 늘어난다”며 “비슷한 조건을 내건 사기업들이 점포를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게 될까봐 걱정이스럽다”며 대학 공간이 상업화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내비쳤다.

보도기획

융합전공, 연계전공 실패사례 살펴 시행착오 최소화 해야

융합전공의 남은 과제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2018학년도부터 융합전공이 우리학교에서도 시행되지만 진정한 학문간 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지원과는 지난 1월,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유연한 학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융합전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십여 년 간 우리학교는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 차례 많은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시도 가운데 이번 융합전공 도입은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기로 한 첫 결정이기에 이목을 끌고 있다. 그 결정이 그저 한 번의 ‘시도’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간의 실패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봤다.

‘융·복합 인재 양성’이 대학교육의 주된 목표가 된 이래로, 정부는 ‘학문 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학교 ‘융합교육’의 역사 또한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이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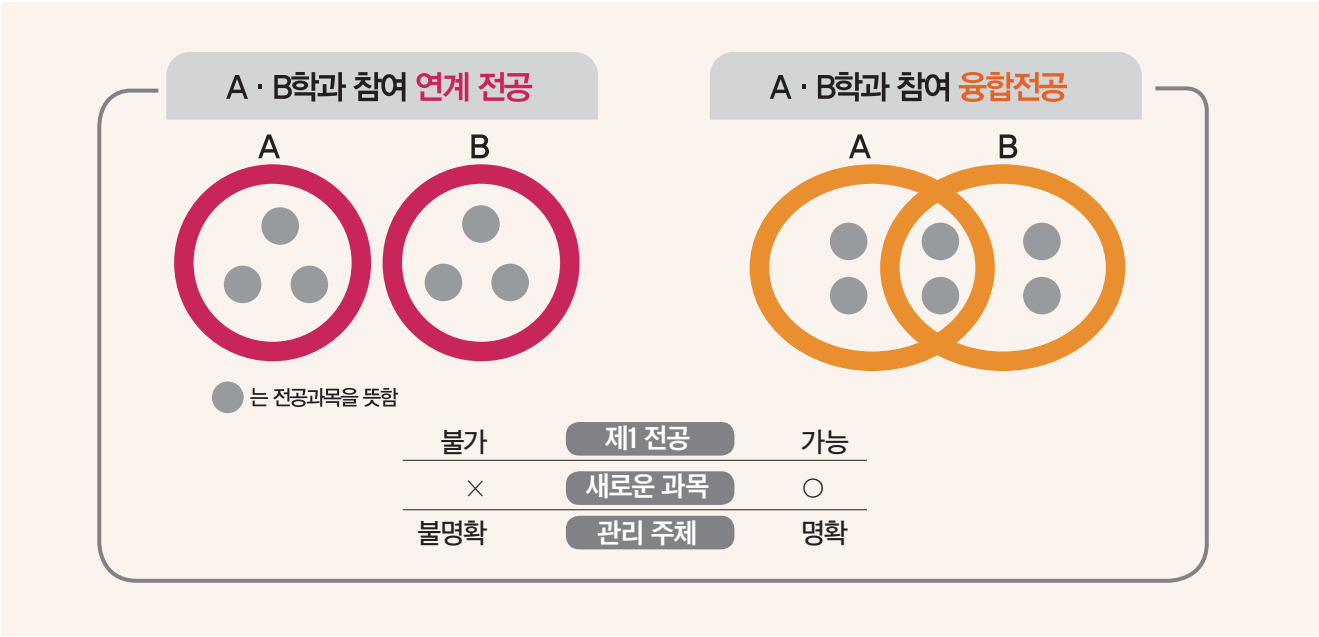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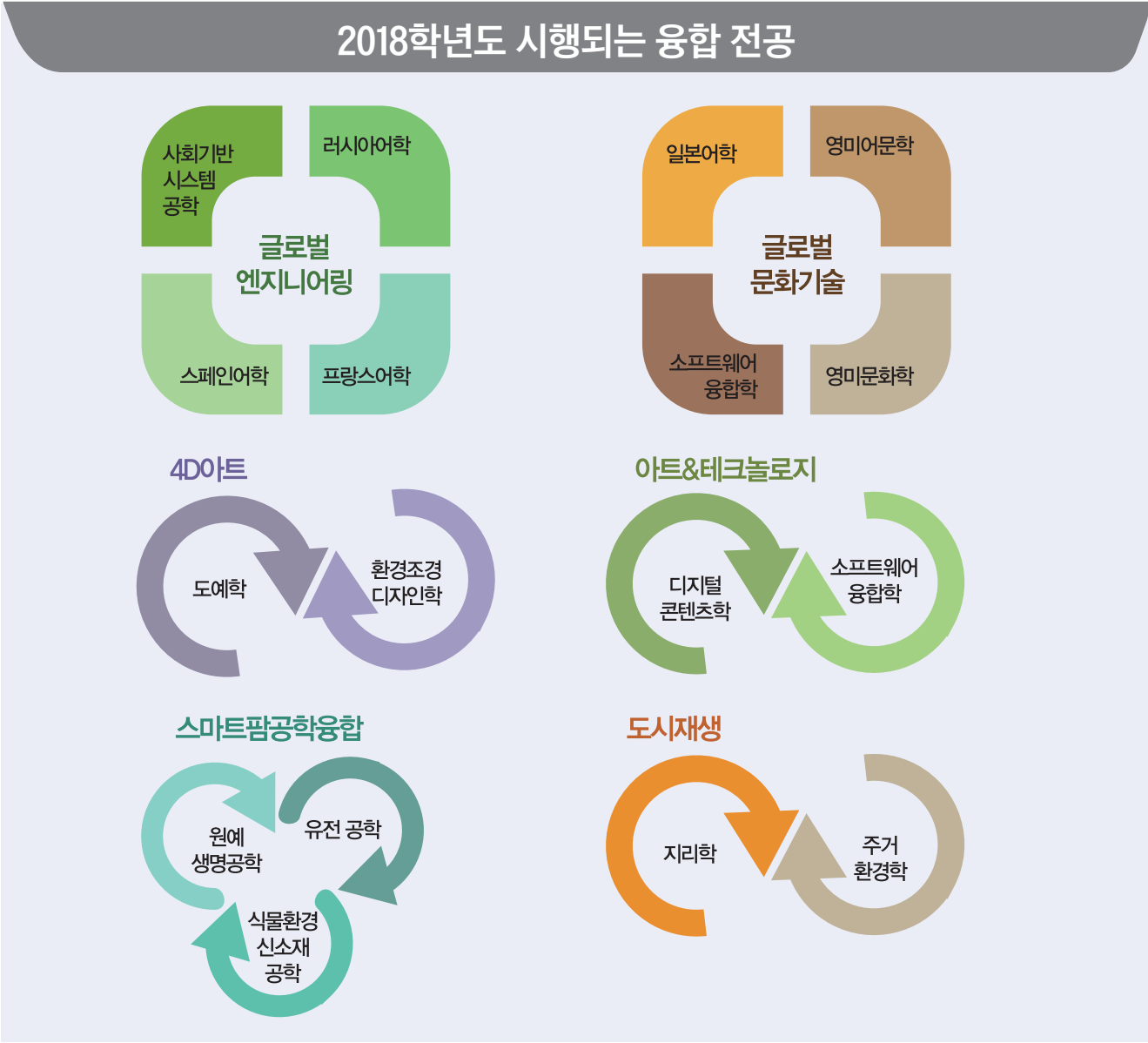
2011년 우리학교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사업)에 선정돼 4년 동안 매년 약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융합교육지원센터(센터장 허균영)를 설립, 융합교육과정개발(융합트랙), 융합 교육 플랫폼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엔 교육부가 주관한 ‘ACE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공교육 수월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확산’ 프로그램으로 최우수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3년 뒤인 2014년에는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에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지리학과·사학과가 융합한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과 국제학과·정치외교학과가 융합한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은 5년 동안 매년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2016년, 대학가의 화두였던 PRIME 사업에서도 융합은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다. 우리학교는 5개 연계협력 클러스터 중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융합대학’과 ‘미래융합공학대학’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2012년 학문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융복합/심화 연구그룹’, ‘융복합 아젠다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구성원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선정 대학 대비 정원 이동 규모에서의 차이 등의 이유로 사업 선정의 고배를 마셨다.

작년에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도 신설됐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총 8개 학과가 참여하는 ▲미래자동차·로봇트랙, ▲데이터사이언스트랙 ▲게임콘텐츠트랙 ▲융합리더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선정을 위한 계획을 제외하고도 ‘학문간 융합’의 시도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2002년 시작된 두 학과의 강의를 자율적으로 조합해 이수하는 ‘연계전공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초기에 설치됐던 연계전공에는 ▲전자공학, ▲영상정보소재, ▲디지털미디어, ▲스포츠경영학, ▲노인복지상담, ▲관광정보, ▲정보통신, ▲섬유시스템공학, ▲기계정보공학, ▲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 ▲영상콘텐츠,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서울캠) 3개, 국제캠퍼스(국제캠) 8개의 연계전공은 신청자 수 미달로 매년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희 부처장은 “연계전공은 거의 폐지라고 보면 된다”며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과학’과 ‘공통사회’ 전공이



“연계전공은 ‘물리적 융합’ 융합전공은 ‘화학적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있지만 폐지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이수불가, ▲관리주체의 부재, ▲화학적 융합의 부재 등의 이유로 학생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계전공은 다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했기 때문에 연계전공을 이수하려면 사실상 세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격이다. 김 부처장은 “학생들이 제1전공을 신경 쓰다 보면 연계전공까지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리주체의 부재도 학생으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왔다. ‘연계전공 시행세칙’은 “‘주관학과 및 주관대학’이란 연계전공을 대표하여 전공 운영을 담당하는 학과(전공) 및 단과대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관학과의 운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 센터장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고 학생들이 4년 동안 연계전공 이수 요건을 채울 때까지 자체적으로 융합을 해야 했다”며 “여타 학과처럼 시간표와 학생들을 관리해 줄 주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융복합 교육을 목표로 한 연계전공이었지만 학생들이 ‘융합’을 실감할 수 없었던 것도 실패의 한 이유다. 디지털미디어연계전공은 컴퓨터공학과와 디지털콘텐츠학과가 참가한 연계전공이었다. 하지만 예술

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자정보대학 학생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예술·디자인대학 김혜경 학장은 “디자인과 학생이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었다”며 “컴퓨터공학과 학생 몇몇이 디지털콘텐츠학과 수업을 들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연계전공 실패 후 ACE사업의 일환으로 ‘융합트랙’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획의 다수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스마트폰바일트랙(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은 시행됐으나 현재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융합트랙은 학위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연계전공과 차이가 있지만 관리주체의 불명확함, 화학적 융합의 부재를 보인다. 김 부처장은 “각 학과별로 과목 개발과 더불어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번의 실패 덕분인지 이번에 도입된 융합전공은 연계전공이 가진 약점을 꽤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두 학과가 참가하는 연계전공의 경우 학생이 자율적으로 각 학과의 전공과목을 조합해서 듣는 방식이었다. 반면 융합전공의 경우 기존 개설된 전공과목뿐 아니라 각 학과의 전공내용이 융합된 새로운 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쉽게 말하자면 연계전공은 학문간 ‘물리적 융합’, 융

합전공은 ‘화학적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허 센터장은 “연계전공에 부재했던 ‘원동력’이 융합전공에선 생길 것이다”며 “이미 주관학과 뿐만 아니라 전공지도교수까지 정해진 상태”라고 했다. 또한 융합전공은 제1전공으로 이수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학할 때의 전공명과 졸업할 때의 전공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허 센터장은 “일본어과 학생이 글로벌문화기술융합전공을 이수하면 ‘공학사’ 학위를 따게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다전공, 연계전공, 융합트랙과정과 달리 각 전공의 중간지점에 있는 과목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합의 효과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전공 운영 시행세칙’은 융합전공 당 서울캠 3과목 이내, 국제캠 2~4과목 이내의 새로운 전공과목을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문화기술융합전공 이창수(일본어학) 담당교수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과 함께 언어능력, 문화이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융합전공 개설에 관심이 있는 학과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허 센터장은 “각각의 융합전공은 나름의 수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졌다”며 “일례로,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 중에는 저개발국이 많아 토목 수요도 많으니 사회기반시스템학과와의 융합으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문제는 존재한다. 융합전공 개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융합된 학과 조합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지난 2월 우리신문에 게재됐던 ‘융합전공 신설’ 관련 기사에는 “여기 저기 가져다 붙인 느낌이 난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터무니없게 연계시켰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이름만 뵈을 때 어떤 학문을 배우는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융합전공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융합전공 이수자들을 위한 새로운 전공과목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컴퓨터공학과와의 결합에서 실패를 겪었던 디지털콘텐츠학과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의 결합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신청자 수가 적어 융합전공 시행이 또 하나의 ‘시도’로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년간 융합전공 신청자가 총 15명 미만일 경우 해당 융합전공은 폐지된다. 연계전공이나 융합트랙과 달리 제1전공 학위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융합전공 진입결정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신중한 사안이다. 본인의 전공이 한 순간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 부처장은 “각 학과별로 과목 개발과 더불어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관학과가 정해져 있지만 각각의 융합전공학과 담당교수가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학과장 회의’를 주재할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당분간은 LINC+ 사업단 산하 융합교육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허 센터장은 “장학금이나 실험실습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이슈다”며 “한 달에 한번 회의를 주재해 융합전공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지원과는 “제도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지만 신청은 내년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갖겠다는 의미다. 이름만 거창한, 말뿐인 ‘융합’으로 남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등록금 이외 수입↑ 인건비 포함 고정비↓

단·중장기 재정계획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2018 재정, 인프라 구축 계획안’이 지난 2월 합동교무연합회에서 발표됐다. 대학본부는 향후 사립대학 최고수준의 재정규모 달성을 목표로 단기·중장기 수입 확충 방안을 비롯해 지출 효율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안의 골자는 등록금 이외 수입은 늘리되 고정비 지출은 줄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신문은 이번 호에서 본부가 발표한 계획안을 소개하고 재정·인프라 분야에 대한 분석을 2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재정예산처는 계획안에서 “10년 뒤 사립대학 최고수준의 재정규모 달성이 목표”라고 밝히며 연간 8.4%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재정예산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성장목표 달성 시 지금보다 약 5,800억 가량 증가한 1조 463억 원의 재정규모를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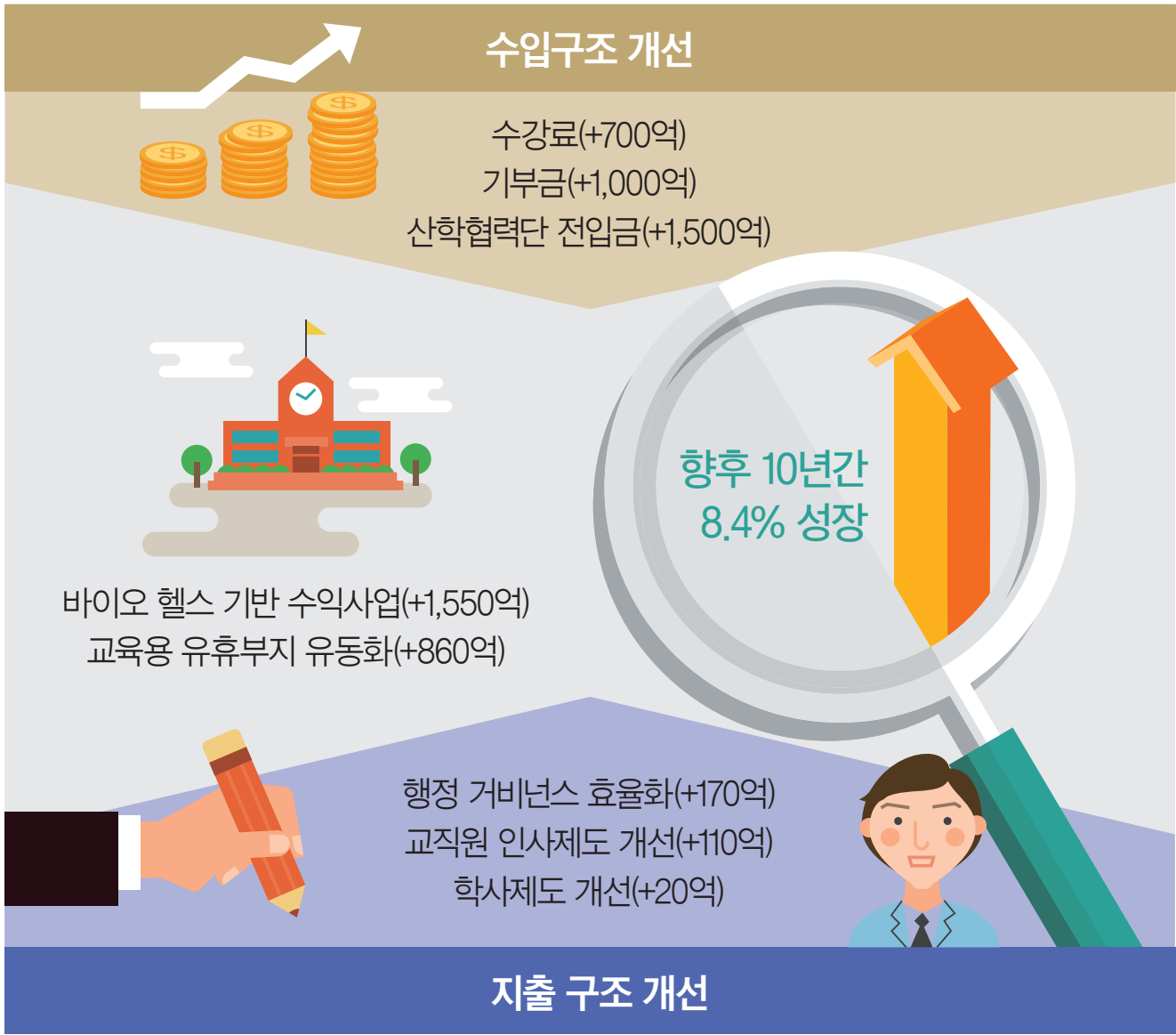
재정예산처는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학교 재정에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 ▲고정비성 지출 비율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우리대학의 현 상황을 짚었다. 등록금 상한제 시행 이후 사립대학 재정규모 성장률은 평균 1.5%지만, 우리학교는 2.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은 2016학년도 기준 약 4,653억 원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뒤를 이은 사립대학 5위이며, 당기운영차액 규모는 90억 원으로 사립대학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수입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16학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연간 1,900억 원으로 타 대에 비해 최대 246억 원에서 최소 122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

등록금 수입에서 타대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재정예산처는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정예산처 박성화 과장은 2017학년도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10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오면서 타 대학에 비해 너무나 뒤처지게 되었다”며 “우리 정도의 등록금 수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어려움도 생각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이 타대에 비해 낮은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2016학년도 기준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정 부담 전입금과 경상비 전입금은 약 269억 ▲산학협력단전입금 79억 원 ▲부속병원전입금 383억 원 등 총 730억 원으로 재정규모 상위 5개 대학 중 4위이다. 2016학년도 기준 기부금 수입 규모는 182억 원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지출이다. 재정예산처는 운영수익 대비 고정비성 지출이 높은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봤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6학년도 기준 ▲보수 ▲시설유역비 ▲공공요금 ▲교내외장학금과 같은 고정비성 지출은 3,620억 원으로 4,653억 원의 운영수익 중 77.8%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예산처는 “재정규모 상위 5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출 최적화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재정예산처의 지적은 2014년에 발표된 ‘대학 행정 및 재정발전 계획안’에서도 나타났다. 2013학년도 본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과 재정의 조화가 어긋난 점, 별도 수익을 위한 재정사업이 실패했던 점 등의 이유로 약 266억 원을 삭감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본부는 “타 대학에 비해 전체 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 부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쉽게도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재정예산처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2018학년도 자금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자금예산 5,014억 원의 63.3%에 달하는 3,174억 원이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잡혀있다. 등록금 수입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법정전입금 또한 올해 21.3억 원이 삭감되면서 사학연금 일부까지 본부

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등록금 이외 수입은 늘리되 고정비 지출은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측면에서는 ▲기금운용수입 ▲기부금 및 전입금 ▲국고보조금을 고정수입으로 보고 기타수입과 수업료 등 나머지 분야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출 측면에서는 ▲장학금 ▲인건비를 고정지출로 보고 이를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재정예산처는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 목표는 수입구조 개선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수입 부분에서는 등록금 외 3대 주요 수입인 수강료, 기부금,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정예산처는 “일회성 수입 확대보다는 적은 규모라도 지속성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강료 부분에서는 국제교육원과 사회교육원 등에 비학위과정 개설과 확대에 중점을 뒀다. 명품 비학위과정 개설 및 한국어 교육 확대, 평생교육원 홍보 등을 계획했다. 최근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회교육원 명칭 변경 또한 이 기조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기부금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곧 맞이할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기부금을 유치하고, 정기 납부 약정 기부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액기부자를 발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산학협력단 또한 2016학년도 78.7억 원,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89.9억 원, 2018학년도 본예산 87.8억 원의 전입금을 부담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5년 내 연구비 2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산학협력단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활성화와 대형과제 적극 수주 등을 통해 점차 수입을 증대시켜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출 부분에서는 행정 혁신으로 고정비의 비중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똑같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21세기 행·재정혁신을 토대로 고정비 중 인건비의 비중을 낮춘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고 볼 수 있다.

재정예산처는 올해 안에 24개 행정실을 10개 행정실로 줄여 행정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교직원 승진·승급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부터 감축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100억 원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적인 사업으로는 바이오헬스 수익사업과 교육용 유휴부지 유동화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익사업으로는 ▲한방 성분 기반 함양치료제 개발 ▲경희제약 바이오시밀러 ▲한방 원료를 활용한 상품 개발로 나누어진다. 우리학교가 강세를 보이는 한·의학을 직접적인 수입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3개 분야 모두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발전시키고, 상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용 유휴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캠 주변의 부지를 활용하여 R&D 빌리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캠 기흥호수 근처 부지에 ▲R&D시설 ▲기숙사, 실험연구동 등 학교 시설 ▲도로, 주차장 ▲UN평화공원 및 체육 문화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열람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였고, 『영상음향자료실』도 리모델링 후 새로운 열람·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1열람실

- 트렌드에 부합하는 오픈형 열람대 및 의자 설치
- 전자 학습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배선 솔루션 설치
-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램프형 조명 설치
- 대용량 무선랜 설치



영상음향자료실

-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열람책상 설치
- DVD 열람석 및 PC 열람석 설치
- 휴식을 위한 소파 및 테이블 설치
- DVD 벽면서가 설치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KYUNG HEE UNIVERSITY CENTRAL LIBRARY

2018 창 의 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참가대상
공학계열 학부생(최소 2인 이상, 타 학과간 구성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3.15(목) ~ 4.27(금)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 (icee@khu.ac.kr)
다운로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지사항 참조 (abeek.khu.ac.kr)

활동내용
· 창의·융합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 교내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거점 경진대회, 전국 경진대회 출전
· 산업계 연계 공과대학 종합설계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할 시 기업 현장 방문 및 멘담들이 제공될 예정 (리스트 참조)

지원혜택
· 시제품 제작 재료비 및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 우수팀 중 선발을 통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관련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학과에 따라 본 경진대회와 졸업작품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대상내용
· 교내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경희대학교 총장상) / 상장 및 상금
· 거점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성균관대 공학교육거점센터장 상) / 상장 및 상금
· 전국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후원기관장상, 한국산업기술진흥위원장상 / 상장 및 상금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일정
· 제안서 심사: 5월 초
· 교내 경진대회: 6월, 8월 (2회 진행)
· 창의적 종합설계 거점 경진대회: 9~10월 중(교내 임상자 대상)
· 창의적 종합설계 전국 경진대회: 11월 중(거점대회 임상자 대상)

문의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cee@khu.ac.kr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Info21로 새로워지는 정보시스템, 2019년부터 이용가능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Info21 사업으로 우리학교 정보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Info21 사업단은 지난 29일 양 캠퍼스에서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어 Info21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Info21 사업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표준화해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구성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특정 브라우저와 PC환경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것을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4년에 계획됐으며 지난해부터 1단계 사업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1단계 사업에는 ‘일반 행정 시스템’과 ‘연구 산학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2단계에는 ‘학사 행정’이 주를 이룬다.

1단계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돼 현재 테스트 과정에 있으며 오는 7월 2일부터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뤄지던 노후화된 행정 시스템을 차세대 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스템 구성에 대해 주요조사를 마친 상태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19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사 행정 시스템은 그 전인 2019년 6월 3일에 개설돼 10월까지 4개월 동안 서비스를 안



정화할 예정이다.

Info21 2단계에는 여러 신규 서비스가 개설될 예정이다. ▲지능형산학협력플랫폼인 Aladdin(알라딘), ▲KHU-BOT(가칭), ▲KHU-Com(가칭), ▲개인 포털 서비스, ▲경영자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학사업무 개선 서비스 등이다.

지능형산학협력플랫폼인 알라딘은

LINC+ 사업 계획 중 하나이며 이 역시 Info21 2단계 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구축된다. 알라딘은 ‘맞춤형 역량관리 시스템’으로 학생이 자신의 희망 직군과 전공, 비교과 활동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앞으로의 과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과 비교과 활동 등을 추천한다. 또한 창업교육, 창

업아이디어 제안 등 창업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용장비 시스템, 가족회사관리 시스템, 기업혁신지원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KHU-BOT은 챗봇(chat bot)서비스로 24시간 동안 구성원의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공지능(AI)이 도입된 KHU-BOT은 부서별로 평소 많이 받는 질문을 미리 입력해 놓으면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준다. 학사 정보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건물의 위치, 학교 주변 날씨 등과 같은 질문에도 답변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음성 채팅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KHU-Com은 SNS 기반 소통공간으로써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간의 소통 또한 가능하다. 별도의 친구 추가가 필요 없이 같은 강좌를 수강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소통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 간 질의응답을 하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끼리 모둠과제를 수행할 때 전보다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다.

개인 포털 서비스가 개시되면 여러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포털 하나로 정보를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개인 포털에는 학생의 학적정보, 수강내역, 학교 웹 메일, 도서관 이용 내역, 공지사항 등 여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개인 포털 하나만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는 PC뿐 아니라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음으로 경영자 정보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학교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경영자 정보 시스템에서는 재학생 총원률, 취업률 등 학사 운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빅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학생을 여러 그룹으로 묶어 각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며 이 밖에도 대외평가 성향 분석, 입시 전형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사 업무가 개선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기 처리하던 작업들이 전산화된다. 학생이 학과사무실이나 행정실을 직접 방문해 해결해야 했던 각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게 된다. 신청뿐 아니라 진행 상황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승인 예정 날짜까지 확인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출석부를 통해 진행하던 출결이 전자 출결 시스템으로 바뀔 계획이다.

Info21 사업단 기술지원팀 신희정 과장은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시스템이 개선되는 만큼 학생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며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업단 메일로 보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처 운영아 부처장 역시 “7월에 개설되는 행정 시스템이 지금 테스트 기간”이라며 “더욱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편한 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 첫 강연 선보여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27일 3시 청운관 B117호에서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후마니타스 특강이 개최됐다.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우리학교 명예평화학 박사이자 미원래쳐 석좌교수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으로서 학내 다양한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Global Engagement & New Leadership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교육과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중요한 정치 의제로 설정하는 추세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한 정



(사진=김수혁 기자)

치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은 인권과 인간 발전의 근간이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경제성장, 경쟁력, 계층이동,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발 등 어떤 측면에서든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 역설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는데 현주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은 변화한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전략에 가치의 측면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시대의 교육”이라 밝혔다. 가치는 인간의 창의적 측면을 반영하며 인간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을 때 진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이해력의 필요성으로 확장된다. 문명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상이한 문화 속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에서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라 국가 내 다문화 사회에서도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유엔 기구에서 중요한 협약을 지키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문화유산 보호 협약, 무형유산 보호 협약, 해저생명 보호 협약 등 많은 협약을 맺어 보호 중이다.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라는 의제 아래 서로 결속되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모두 다른 역사와 문화적·언어적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와는 상관없이

문화 간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대화가 이뤄지고, 공감을 통해 공동의 문화를 상호존중하게 된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우는 국제기관으로서의 유네스코가 특정 국가 내 다수가 원하는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인구 수가 기준이 되지 않고 인간 문명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며 “모든 문화는 독자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이후 우리 학교 내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5월에 재방문할 예정이다.

2018-1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 안내

-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사회진출분야 탐색, 진로설정 등 신도있는 자성생활 계기 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 종합실용능력 함양
 - 교수-학생 간 실질적 지도 계기 마련
- 지원대상
 - 2018-1학기 현재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금정 위배자
 - 2018-1학기 휴학(예정)자 신청 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개관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도전분야: ①창업 / ②봉사 / ③탐방 / ④연구 / ⑤기타
 -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선발인원: 50명/팀 내외
 -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1단계) 서류평가 100%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 (2단계) 면접평가하여 서류평가 100% + 면접평가 100%로 최종 대상자 선발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함
 -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구분	평가항목
서류평가 (100점)	꿈과 도전주제의 연계성(25점)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5점)
	실행결과와 공공성(15점)
면접평가 (100점)	장학금 사용계획의 적합성(15점)
	교수추천서(10점)
	학생지도계획의 충실성(10점)
	학생 잠재력, 도전의식 및 발전 가능성(20점)
면접평가 (100점)	도전목표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20점)
	실행계획의 준비도 및 추진의지(30점)
실행결과와 공공성 파악력 및 사회 기여도(30점)	

- 장학금 지급액: 1인/팀당 400만원
- 장학금 신청시 300만원 선지급,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이후 심사를 통해 100만원 지급
- ※ 인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

-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8.03.18 (월) 09:00 ~ 2018.04.13 (금) 17:30 (4주간)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 1) 온라인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2018-1학기 경희꿈도전장학
 - 2)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18.04.11 (수) 09:00 ~ 2018.04.13 (금) 17:30
 - 제출처: 학생지원센터(장학)(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7번 창구)
 - 제출서류
 - (1)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 1부
 - (2)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 활동계획서는 동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도 제출해야 함
 - (3) 경희꿈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 1부
- 선발일정

내용	일정	비고
1) 장학금 신청	2018. 3. 19 (월) 09:00 ~ 2018. 4. 13 (금) 17:30	400,000원
2) 장학설명회	2018. 3. 20 (화) 18:00, 청운관 507호	
3) 서류제출기간	2018. 4. 11 (수) 09:00 ~ 2018. 4. 13 (금) 17:30	
4) 면접평가일	2018. 4. 27 (금)	시간 및 장소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5) 선발결과 발표	2018. 5. 4 (금) 10:00	학생지원센터(장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6) 1차 장학금 지급	2018. 5. 11 (금)	

- 장학생 의무사항
 -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경희꿈도전장학생 커뮤니티 참석 및 활동(학생자치활동)
 - 최종 결과발표회 참석
- 장학생 의무사항

내용	일정	비고
꿈도전 기간	2018.5월 ~ 2019.2월	
중간보고서 제출일	2018.10.28 (월) 24:00	janghak1@khu.ac.kr로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일	2019.01.27 (월) 24:00	janghak1@khu.ac.kr로 제출
결과발표회	2019년 2월중	학위 수여식 이전에 실시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유의사항
 - 꿈도전 기간 중(2018-1~2학기)에는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할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함
 - ※ 단, 복학학기 이후 중간-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발표회에 참석하여 최종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을 재지급함
- 기타문의: 학생지원센터(장학) 961-0045-0046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2018년 4월 학술평보 활용교육 특집: 연구력 강화 워크숍

- IEEE Authorship Seminar
 - “How to Write a Quality Technical Paper and Where to Publish within IEEE”
 - 일시 | 4. 19 (목) 15:00 ~ 16:30
 - 장소 |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 (B1)
- 연구경쟁력 향상과 연구동향 분석
 - Web of Science, JCR
 - 일시 | 4. 19 (목) 15:00 ~ 16:30
 - 장소 |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 (B1)
- Scopus
 - 일시 | 4. 26 (목) 15:00 ~ 16:30
 - 장소 |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 (B1)
- 서지관리와 논문작성 툴
 - RefWorks를 활용한 서지관리와 Write-N-Cite 활용 논문작성
 - 일시 | 4. 13 (금) 15:00 ~ 16:30
 - 장소 |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 (B1)
- 대학원생 정기간교육
 - 논문 자료 조사 (학술정보 탐색과 활용)
 - 일시 | 4. 11 (수) 10:00 ~ 11:30
 - 4. 12 (목) 15:00 ~ 16:30
 - 4. 13 (금) 18:00 ~ 19:30
 - 장소 |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 (B1)
- 학부생 정기간교육
 - 도서관과 함께하는 A+ 리포트 완성전략
 - 일시 | 4. 4 (수) 15:00 ~ 16:30
 - 장소 |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 (B1)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Service → 학술정보 활용교육
 - 문의: 도서관 주제정보팀 031) 201-322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IEEE

AUTHORSHIP SEMINAR

How to Write a Quality Technical Paper and Where to Publish within IEEE

■ 일시 | 2018. 4. 4 (수) 10:00 ~ 11:30

■ 장소 | 공학관 세미나실 107호

■ 강사 | Alex Liu Yupeng (IEEE APAC Client Services Manager)

■ 강의 내용

1. IEEE 소개 및 배경

2. How to Write a Quality Technical Paper and Where to Publish within IEEE

- : IEEE in Korea / Choices / Audience / Structure / Ethics / Publish / Open Access / Impact Factor / Nest Step

3. IEEE Xplore 활용 방법 및 Author Tools

■ 세미나 신청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kulis.khu.ac.kr) → Service → 학술정보 활용교육

문의: 도서관 주제정보팀 031) 201-322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그는 왜 그녀의 채장을 먹고 싶어 했을까

전문가 칼럼

강인욱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얼마 전 일본 소설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스미노 요루)〉가 큰 인기를 얻으며 동명의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제목만 보면 엔간한 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기 힘든 고어영화 같지만, 정작 내용은 채장 암에 걸린 소녀와 그녀를 사랑하는 수줍은 소년의 사랑이 세심하고 잔잔하게 이어지는 애뜻한 사랑 영화였다. 이렇게 로맨스에 어울리지 않는, 고어영화 같은 잔인한 제목이 붙은 이유는 ‘아픈 부위를 먹으면 낫는다’는 예전부터 전해오던 속설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부위를 대신 내가 먹어서 없애준다면 낫지 않을까하는 소년의 마음이다. 전혀 개연성이 없고 괴이하게 보이는 이런 생각은 사실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다. 고대로 올라가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먹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발로였다. 중국의 춘추시대인 기원전 7세기, 위(衛)나라의 무능했던 왕인 의공(懿公)은 백성보다 자신이 기르는 학을 더 소중히 여겼다. 결국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에 의해 살해된 그의 시체를 누구도 돌보지 않았고 가족들마저 떠났다. 주군의 사직종묘가 끊길 것을 걱정한 의공의 마지막 남은 충신인 홍연(弘演)은 시신에서 간을 꺼내 자신의 배에 집어넣고 스스로 관이 되길 택해 자결했다고 한다. 일본보다 2천여 년이나 먼저 활복이 등장한 것이다. 지금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무덤이 없으면 사직종묘를 제대로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고대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생각인지도 모른다. 그밖에도 수많은 인신공양 이야기의 저변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다. 한편 인간은 자신들에게 가장 무서



영화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 스틸컷

(사진=중앙일보DB)

운 맹수를 숭앙하면서 그들의 일부를 먹거나 소지함으로써 공포를 달래곤 했다.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서 살던 유목전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 화려한 장식과 무기들을 갖추었지만, 매일 초원에서 목축을 하며 맹수들과 맞서서 살아야했던 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을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의 후손으로 자칭하며 맹수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물어뜯는 광경을 하리피, 재갈, 칼 등에 새겼다. 그들과 같은 용맹함을 얻고자 함이었다. 기원전 9세기에 등장한 이런 역동적인 동물의 모습을 ‘스키타이 동물장식’ 또는 ‘스키타-시베리아 양식’이라고 한다. 이 동물장식은 한국에도 널리 퍼져서 철기시대와 초기 신라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맹수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맹수의 털이나 피를 바르면 낫는다고 믿기도 했다. 영어로 과음을 한 다음날 마시는 해장술을 ‘개털(hair of the dog)’이라고 한다. 얼핏 연상되지 않는 이름인데, 듣거나 맹수에게 물린 상처는 듣개의 털이나 가죽을 문지르면 낫는다는 서양의 속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술 먹은 다음날 숙취로 탈이 나면 전날 먹다 남은 술로 해장한다는 뜻이다. 해장술을 많이 마

시면 다음 날까지 취기가 이어져서 술주정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개털’을 잘못 마시면 ‘개의 후손이 된다(heir of the dog)’는 농담도 있다. 상속인(heir)과 털(hair)의 발음이 같은 데서 나온 농담이다. 하지만 인간 문명이 발달하며 이런 미신은 인간의 범죄와 탐욕으로 바뀌었다. 중세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마녀사냥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고,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도 각지에서는 다양한 미신과 속설이 성행했다. 현대까지도 각종 정력제와 그릇된 미신으로 죄 없는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동물의 특정한 부위를 섭취하면 그 동물의 우월한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부질없는 믿음은 의외로 많다. 플라시보(위약) 효과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물개의 해구신, 코벨소의 뿔 때문에 이 동물들은 멸종의 위기에 있다. 근대 이후 전쟁과 학살이 대형화되면서 사람의 신체까지도 포악한 인간의 파괴본능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쟁에서 잔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힘이 미약한 여성과 노약자에 집중된 것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카니발리즘’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아마존과

같은 원시인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시사회는 죽은 자의 지혜를 얻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식에서 상징적으로 의식을 진행했고, 서양인들이 편견으로 이를 바라본 것이었다. 잔인하게 서로를 도륙하는 카니발리즘은 오히려 중세 이후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 된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세상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한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 일부를 약으로 삼는 전통은 인간의 탐욕으로 바뀌어왔다.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의 작가는 단순히 눈에 띄고 싶어서 다소 잔인한 제목을 택했다고 하지만, 고고학자인 필자의 눈에는 그 제목에서 인간의 탐욕에 가려진 고대인들의 순수한 모습이 보였다. 사실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맹수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대항하며 주변 사람을 사랑하던 고대 사람의 지혜의 발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수많은 징크스를 만들고 있고, 부적과 점술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 예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인간의 혐오가 극대화되는 요즘, 이런 역설적인 제목의 작품이 우리 사이의 긴장을 치료하는 화해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여마당

전재훈
(정치외교학 2013)



당(黨)심 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답이다

도움 주기는 어렵지만 횡방 놓기는 쉽다고 했다. 모두가 약속했던 개헌이지만 이제는 횡방 놓기 바쁘다. 개헌 내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은 없고 당리당략만 오간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횡방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고 있다. 여야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평행선을 달리고, 핵심 갈등은 적체된 상태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급한 문제들은 교착 상태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 더 나은 정치를 염원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외면당한다. 민심을 외면하는 당(黨)심 정치가 문제다. 본질에 몰두하는 올바른 정치 문화가 필요한 때다. 우리 정당 정치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 문화가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정치인이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당 지도부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한다. 공천권을 받기 위해 이를 쥔 당 지도부에게 잘 보여야 한다. 당선 이후에도 다음 선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당론에 따라 행동한다. 당의 간부들에게 밍보여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바라기는 힘들다.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보스 정치의 행태가 남아있으니 말이다. 당에 충성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한국형 국민참여 경선제도 도입으로

민주적인 정당문화 지향해야

국민참여경선제도 법제화가 한 가지 해결책일 것이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완전 국민참여경선제도를 통해 공천이 이뤄진다면, 정치인은 당론보다는 여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좋은 본보기다. 미국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참여경선제도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듬어왔다. 이를 교재 삼아 한국형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해, 민주성이 낮은 현재의 하향식 정당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정당 정체성과 가치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이 공천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잃어버린 현재 정당들이 잃어버린 민심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공천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단숨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정당 문화를 방치해두면, 중요한 사안마다 횡방과 교착이 재현될 뿐이다.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비틀어도 뚝뚝만 나온다면 집수기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폐쇄적인 정당 문화와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민심을 살피는 맑은 물은 나올 수 없다.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일반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린다면 당심 정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오윤자의 마음 코칭 - ③

매력적인 흠길 위에서 ‘가심비’를 더해 가면 어떨지



오윤자 교수
(아동가족학)

“저는 발표가 너무 힘들어요. 발표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울고 그냥 강의실을 나와 버렸어요. 발표 없는 과목을 찾아서 수강신청하고 있어요. 꼭 발표를 해야 된다면 진정제를 먹고 발표를 마친 적도 있어요. 발표를 앞두고 정말 불안합니다. 다른 걸 잘하는 동료는 발표도 잘하는 것 같은 저는 왜 이런 건지…….”

본능, 자아, 초자아의 갈등
불안 발생 요인

우리 주변을 둘러싼 유행은 우리를 동조나 선호경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 말들이 있다. 수저(금과 흠), 길(꽃길과 흠길), 세대(X와 Y와 Z), 족(갱거루과 울로)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의 총량을 다해도 부족한 대학시기에 이러한 타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한다. 불안은 심리상담 치료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다뤄진다. 불안은 병리적 요소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르는 긴장상태로서, 명확한 대상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라고 정의된다. 정신분석적 관점에 의하면 성격의 구조는 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는데, 불안은 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용한 심리적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경고 기제다. 즉 발표를 앞두고 자아가 합리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 할 때에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안인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불안 존재
발표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

우리학교 앞 상가의 다양한 상점 도열을 정기적으로 훑어보면 유행을 가늠할 수 있다. 한동안 열풍이었던 인형 뽑기는 호기심과 재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어느샌가 전 국민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듯 착각을 하게 한다. 누차의 시도 끝에 간신히 걸려 든 인형을 열싸안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적은 돈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적은 돈,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패스트 취미로 등장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뽑기를 목표로 반복하는 행위에는 불안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을 터다. 하지만 이때 불안을 호소하는 이는 없

다. 불안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협이나 위험의 인식으로 느끼는 불안은 현실적 불안이다. 도덕에 위배된 행동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낄 때는 도덕적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명확한 이유와 대상이 없음에도 불상사나 처벌 등의 위협을 느껴서 발생하는 신경증적 불안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발표 불안에 해당된다. 발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불안의 실체를 찾아보고 이와 함께 자신을 무엇이 억압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사실, 대상 등을 발견하면 불안은 저절로 감소할 수 있다. 이를 찾기 어렵다면 불안한 현재를 글로 적어 개념화하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 준비한 만큼만 발표하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기 등으로 채워 넣어본다.

‘가심비’ 더하기를 통해
불안의 실체 찾아보자

이러한 과정에서 발표 불안은 감소하거나 해결될 것이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불안이 감소된 발표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함이 중요할 수 있다. 1순위로 ‘가심비’ 더하기

를 추천하고 싶다. 김난도 교수가 설명한 가심비는 ‘가격대비 성능비’인 가성비 개념에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특성을 추가한 것이다. 정리하면 불안의 실체를 찾아보고 자신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와 준비로 불안감소를 목표하는 것이다.

발표 불안 해결위해
현재의 좋은 경험에 초점

프레이(Thomas Frey)는 경험이 움직이는 시대로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발표 불안을 겪을 때, 나의 현재를 중심으로 좋은 경험에 초점을 두자. 긍정적인 기억을 가져보자. 열 번의 불안 경험이 여덟 번으로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융합하자. 나를 찾아가는 ‘힘한’ 즐거움을 관통해 가는 경험을 축적해 가져. ‘있는 그대로 내’가 되어 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들보다, 불안을 가진 채 발표의 지령을 바꾸는 미래인이 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으리라. 한 가지 비밀을 첨언하자면, 금수저를 들고 꽃길만 걷던 사람이 의외로 빈곤 때문에 더 많은 금수와 걱정을 토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포츠

홀로 다른 곳을 보며 우리학교를 책임지는 안방마님

야구부 이청현 선수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 ‘경희’라는 이름을 빛내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 14개 운동부(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태권도, 배드민턴, 체조, 양궁,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필드하키, 골프, 럭비)의 힘이 대단하다. 우리 신문은 경희를 빛내기 위해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리학교 14개 운동부 선수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우리학교 야구부를 이끄는 주장, 이청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다.

봄과 함께 야구의 계절이 왔다. 24일,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동시에 3월 31일부터 전국대학야구 주말리그(주말리그)의 막이 올랐다. 우리학교 야구부는 아쉬웠던 지난 몇 해의 성적을 뒤로하고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31명의 선수들을 이끄는 주장, 이청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를 만나봤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이 선수는 단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이 데려간 야구장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반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후, 선수가 되었다. “형들이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라며 “그걸 입어보고 싶어서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평범한 이유였다.

이 선수의 포지션은 포수다.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투수의 공 배합을 정해 컨트롤하고, 크게는 야수들을 아우르는 역할까지 한다.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살림을 하기 때문에 ‘안방마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선수는 “작년부터 포수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며 “내가 정하는 볼 배합으로 상대팀 타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력이다”고 했다.

이전까지 포수 자리에 앉으면 긴장이 많이 났다는 이 선수는 “플레이가 잘 안 풀리면 속으로 화가 많이 나고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항상 마인드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이 선수는 이를 훈련뿐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코치로부터 호흡법을 배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고 한다. “이런 단점이 훈련으로 커버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며 “책에 나오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비결을 말했다.



이청현 선수의 목표는 언제나 1등이다.

(사진=본인제공)

야구부 생활에 대해 이 선수는 “학기 중이면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훈련을 한다”며 “야간에는 수업을 듣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말했다. 방학 중 일과는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의 연속이다. 우리학교 야구부는 3월 31일부터 주말리그라는 대장정을 시작했고 훈련의 성과를 내보일 계획이다.

마인드 컨트롤 중요

책 읽거나 호흡법 배우기도

이 선수는 “타격이 좋은 홍익대와 인하대를 경계하고 있다”며 “특히 홍익대는 매년 리그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계는 되지만 질 것 같지는 않다”며 “목표는 언제나 1등이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작년 주말리그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제가 주전 포수였는데 손목 부상으로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다른 포수 포지션의 선수도 수술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외야수를 보던 노민석(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가 포수를 임시로 보다 보니 제 실력이 나오지 못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유독 이상하게 작년에 선수들이 주눅 들어 있다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이번 시즌에는 이런 점을 잡아나가기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의 부상은 이 선수 개인에게도 힘든 기억이었다. “부상으로 목표하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했다”며 “대표팀 발탁을 두고 경쟁했던 경쟁대의 고성민 선수가 대회를 뛰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실력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부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였던 것 같다.”

“

경희대는 저를 생각이나 실력적으로나

많이 성장을 하게 해준 학교.

몇 십 년을 야구만 하다 보니

야구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 적이 없다

”

대해 설명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이 선수와 달리 고교 동기인 최민창(LG 트윈스) 선수, 최승민(상무 야구단) 선수는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포수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선택했다”며 “이르게 프로에 가서 방출당하는 것 보다는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야구를 좀 더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경희대는 저를 생각이나 실력적으로나 많이 성장을 하게 해준 학교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우선 대학에 진학한 것이 너무 좋다”며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부로 경희대 같이 좋은 학교에 올 수 있었잖나며 웃으며 이야기 한다”고 했다. 졸업 이후 프로 입단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선수는 “몇 십 년을 야구만 하다 보니 야구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팀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이 선수는 세 명의 롤 모델을 닮고 싶다고 했다. 박경완(SK 와이번스) 코치에게서는 주장으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리더십을, 강민호(삼성 라이온즈) 선수나 양의지(두산베어스) 선수에게서는 포수로서 필요한 능력을 배우고자 했다. “두 선수가 도루를 저지하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자신과 비교해본다”는 이 선수에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시즌 아쉽지만

다음 시즌 도약 약속해

끝으로 “감독님께서 투수 출신이셔서 그런지 포수하느라 고생한다고 1학년 때부터 저를 너무 많이 챙겨 주셨다”며 “프로에 간다면 감독님께 꼭 많이 보답하고 싶다”며 김도완 야구부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동료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다 같이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좋은 성적으로 리그 마무리하고 프로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테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는 말을 전했다.

헬멧, 마스크, 프로텍터, 무릎보호대까지 한여름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유니폼이 땀범벅이 되는 포지션이 포수다. 뜨겁게 달아오른 포수 마스크 안에서 냉철한 눈빛으로 야수들을 지휘하며 우리학교의 흠플레이트를 든든히 지키는 안방마님, 이 선수가 펼쳐나갈 앞날을 응원한다.

농구부 3연승으로 공동 1위, 배구부 2연승, 축구부도 개막전 승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시작의 달 3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많은 선수들이 종횡무진 활약했다.

지난달 22일, 선승관에서 열린 첫 공식경기가 열렸다. 2018 KUSF U-리그 대학농구 첫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78-66으로 한양대를 완파했다. 센터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우리학교 특유의 빠른 농구로 이를 극복했다.

이 기세를 이어 지난달 26일 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단국대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3쿼터가 끝날때까지 단 한 번도 리드를 잡지 못했던 우리학교는 4쿼터 권성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의 10득점 활약에 힘입어 연장전에서 역전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2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김준환(스포츠지도학 2017) 선수와 2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박세원(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둔 농구부는 고려대와 함께 리그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3일, 조



선대와 네 번째 경기를 갖는다.

한편 배구부도 시작이 좋았다. 몇 년간 홈경기를 치를 수 없었던 우리학교 배구부는 선승관 개관으로 홈 경기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우리학교 배구부는 경남과학기술대를 1세트부터 강하게 압박했다. 강병모(스포츠지도학 2015) 주장의 활약과 작년 시즌 블로킹 1위를 달성한 알렉스(체육학 2014) 선수의 장기가 빛났다. 여기에 여러 선수의 서브에이스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다. 경기 후 주장 강병모 선수는 “선승관에서 경기를 하니 관중도 많고 더욱 신나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며 선승관 첫 경기 소감을 전했다.

배구부는 지난달 30일, 한양대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했다. 주장 강병모 선수의 20득점과 김인균(스포츠지도학 2018) 선수의 14득점이 승리를 견인했다. 알렉스 선수는 블로킹 6개 포함 18득점으로 대학배구 최고 블로커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배구부 김찬호 감독은 “4세트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고무적이다”며 선수

들을 칭찬했다. 배구부는 오는 7일, 선승관에서 조선대를 상대로 3연승을 노린다.

축구부는 지난달 23일, 용인 축구센터에서 열린 2018 U-리그 개막전에서 KC대를 2-0의 스코어로 꺾었다. 두 골 모두 전반전에 손경현(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와 이재원(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가 각각 기록했다. 오는 6일, 축구부는 숭실대를 상대로 2연승을 노린다.

2018 청주 직지컵 핸드볼대회에 나선 우리학교 핸드볼부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첫 경기였던 충청남도체육회와의 경기를 23-21로 아쉽게 패배하고,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30-22로 패배했다. 지난달 24일, 원광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경기에서 25-20으로 승리한 핸드볼부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춘계럭비리그를 진행 중인 럭비부는 지난달 25일, 고려대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으나 29일 연세대에 패해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양궁부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를 기록하며 8명인 양궁 국가대표의 일원이 됐다.